

# 중국, 대만 포위 훈련 종료...군사적 긴장은 지속

### 5일 연속 중군용기 중간선 넘어 중국 자국 앞바다서 실사격 훈련 대만 육군, 포사격 훈련 맞불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7일 사실상 종료됐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해역에서 훈련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는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의 해·공(空)역에서 4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부터 7일 정오까지 중요 군사훈련과 실사격을 실시하는 등 각종 훈련을 진행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중국 군용기 66대와 군함 14척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합동훈련을 했다

H-6 폭격기 3대, J-16 전투기 6대, J-11 전투기 4대, Su-30 전투기 8대, Y-8 ASW 해상조계기 1대 등 22대는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안에 들어왔고, 이 가운데 J-11 전투기 4대와 Su-30 전투기 8대 등 12대는 대만해협 중간선 안으로 넘어 들어왔다.

대만 국방부 발표 기준으로 이날까지 5일 연속 중국 군용기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중국과 대만 사이 비공식 경계선이다.

중국군은 훈련 첫날인 4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주변 해역에 총 11발의 동풍(東風,DF) 계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 해협에 장거리포를 쏘아부으며 미국과 대만을 동시에 겨냥한 전례 없는 화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만군은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대만 해협에서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졌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을 대만을 공격하는 모의훈련으로 규정했다.

중국군의 대만 봉쇄 훈련이 끝나더라도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앞바다 곳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다.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이 끝나더라도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앞바다 곳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다.

중국의 대만 봉쇄 훈련이 끝나더라도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자국 앞바다 곳곳에서 실사격 훈련을 예고했다.

항 인근 바다에서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며 선박 진입을 금지했다.

중국군에 맞서 대만 육군도 오는 9-11일 남부 평둥현 인근에서 155밀리 곡사포 78문과 120밀리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을 훼손한 점은 중국과 대만 및 미국 간 군사적 긴장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마·중간 전구(戰區) 사령관 전화 통화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며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 군사안보 협의회 회의를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대화와 협력 채널을 단절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로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훈련에 대해 "이런 활동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중국 측 시도"라면서 "이는 도발적이고 무책임하며 오판의 위험성을 키운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점령지 영토 병합 투표 강행 시 평화협상 불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역에 대한 주민투표 강행 시 평화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러시아는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소유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점령자들이 '가짜 주민투표'(pseudo-referendum)를 추진한다면,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필요할 우크라이나, 그리고 자유 진영과의 모든 대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 점령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병합했던 전철을 밟는 것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돈바스 지역 친러 분리주의 세력들은 자체적으로 독립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수립을 선포한 바 있다.

러시아군과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세력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및 루한스크주, 남부 헤르손주, 동남부 자포리자주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2014년과 유사하게 자국 영토로 완전히 편입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

/연합뉴스

## 세금 더 걷어 기후변화 대응 美상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대기업에 15% 법인세 부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막대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적 수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처리한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상원은 격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압력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처리한 뒤 법안의 서명 및 공포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축소 수정한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개월 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노력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할지 바라는 바이든의 중요한 승리"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무력 충돌 사흘만에 휴전

### 가자지구 아동 등 44명 목숨 잃어 이스라엘 측 인명 피해 부상자 3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PIJ)가 무력 충돌 사흘만인 7일(이하 현지시간) 이집트의 휴전 중재안을 수용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PIJ는 성명을 통해 "조금 전 이집트의 중재안이 도착했다"며 오후 11시30분 휴전 합의가 발표된다고 확인했다.

PIJ는 이어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을 지칭)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의 중재안을 수용해 이날 오후 11시30분 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의 합의사항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공공의교 정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휴전 의사를 밝히고, 이집트의 중재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성명은 이어 "만약 휴전이 깨지면 이스라엘은 강제력을 동원해 대응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주민의 일상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5일 전투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시작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사흘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다만, PIJ측이 휴전 수용의 조건으로 2명의 죄수 석방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휴전에 조건이 없다고 주장해 이점이 해소되지 주목된다.

PIJ가 석방을 요구한 죄수 중에는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서 체포된 고위급 사령관 바셈 알-사이다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사흘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막강한 공세로 가자지구에서는 15명의 아동을 포함해 44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도 300명 이상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 무장 정파 하마스파와 이스라엘 간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희생자의 장례식이 거행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아이들이 절규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 공습으로 5세 여아를 포함해 최소 11명이 숨졌다.

'11일 전쟁' 과정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가자지구 도심은 이번 무력 충돌을 거치면서 더 황폐해졌다.

반면, 이스라엘 측 인명 피해는 부상자 3명에 그쳤다.

PIJ는 휴전 발표 10분 전까지 사흘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1000발에 가까운 로켓과 박격포를 쏘았지만 대부분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 돔에 요격됐다.

이스라엘군은 지난주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

타인 자치정부(PA) 관할 지역에서 테러범 수색 중 PIJ의 고위급 지도자인 알-사이다를 체포했다.

당시 PIJ는 대이스라엘 복수를 천명했고, 이를 우려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인근 도로를 폐쇄하고, 가자지구 경계에 병력을 대거 집결시킨 뒤 전투기와 야포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가했다.

이후 PIJ는 이스라엘 남부지역과 텔아비브, 예루살렘 등 대도시를 겨냥해 로켓과 박격포를 쏘며 맞섰다.

/연합뉴스

## "기시다, 자민당 4역 중 간사장 제외 3명 교체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단행할 개각과 자민당 내부 인사에서 당 4역 중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을 제외한 3명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체 검토 대상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과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이다.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웠던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교체할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는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은 아니지만, 방위비 대폭 증액 등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을 당내에서 대변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다카이치는 정부와 자민당의 정책을 놓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기시다 총리 또는 모테기 간사장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무파벌인 다카이치 대신 아베파 소속 의원을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정조회장에 기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아베파 소속 후쿠다 총무회장은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와 자민당 소속 의원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입방아에 올랐다.

/연합뉴스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대인시장, 한화생명, (구)청자대방, KT 광주별당, 대중병원, (구)김병원, 추선회관, 광주중앙초등학교, 세종약기, 주치정 입구, 예술의거리, 금남새마을금고, 음식의 거리, 동양저축은행, 금호시민문화관, 원리사, SK브로드밴드, 지하철 ④번 출구, 금남로4구역, 금남로공원

### MG골프클럽

구분	이용기간	정상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